

2024
고1
3월 학평2024년 시행 고1 3월 학평 국어 문학 | 그게 아닌데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앞부분 줄거리] **동물원의 코끼리들이 도심으로 탈출했다.**(2005년 실제로 벌어진 동물원 코끼리 대탈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임.) **근처 선거 유세장에서는 정치인이 부상을 당하였고, 일대는 쑥대밭이 되었다.**(코끼리의 탈출로 쑥대밭이 됨.) 조련사는 유세를 방해하기 위해 일부러 코끼리를 풀어 준 혐의로 경찰서에 붙잡혀 와 조사를 받는다. 참고인 자격의 의사와 아들의 면회를 온 어머니도 함께 있다.

조련사: 정말인데. 코끼리들은 공연하면서 많이 우는데. 답답하다고 우는데. 슬퍼서 우는데. 난 다 알고 있었는데. 코끼리들이 며칠 전서부터 도망갈 조짐을 보인 것도 알았는데. 도망가려고 의논하는 소릴 들었는데. 그리고 그날은 공원에 갈 때 다른 날과 다르게 빨리 걸었는데. **난 눈치를 썼는데.**(코끼리가 탈출하려는 것을 눈치를 썼었음.) 오늘이구나. 다른 조련사들이 나한테 다 말기고 매점에 갔을 때, 코끼리들이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는데. 거위들이 꺽꺽덜 때 서로 눈을 마주쳤는데. 나도 코끼리랑 눈이 마주쳤지만 휘파람을 불었는데. **못 본 척 휘파람만 불었는데. 도망가라고. 가서 가족들 애인들 만나라고 일부러 못 본 척했는데.**(코끼리가 동물원에서 탈출하려 하는 것을 눈치 썼으나 일부러 못 본 척함. 그러나 조련사가 코끼리를 풀어 준 것은 아님.)

어머니: 겁을 많이 먹었어요. 두려우면 말이 많아져요.

어머니가 손수건을 꺼내 조련사를 닦아 주려 하나 조련사가 피한다.(어머니의 손길을 피하는 조련사의 모습을 통해 소통이 단절된 상황을 드러냄.)

의사: (조련사에게) 도망치지 마세요. 선생님은 지금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고 그리로 도망가는 겁니다. 용기를 내서 직면하세요. 직면이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정정당당하게 직접 부딪치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조련사가 외면한다.(의사의 말을 외면하는 조련사의 모습 역시 소통이 단절된 상황을 드러냄.)

형사: (담배를 비벼 끄고) 야, 인마! 나 똑바로 쳐다봐. **너 아까 시인했지? 시켜서 했다고. 그들이 널 1년 전부터 코끼리 조련에 투입했잖아.**(조련사에게 배후 세력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다그치는 형사)

조련사가 외면한다.

어머니: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 **넌 그저 착한 마음에 코끼리들을 풀어주고 싶었잖아.**(어머니는 조련사의 행동의 원인을 그의 착하고 순진한 성품에서 찾고 있음. **의사, 형사, 어머니가 조련사에게 강요하는 자신들만의 논리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네가 그랬잖니? 동물들이 밧줄에 묶여 있는 것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꼭 네가 묶인 것처럼 마음이 아프다고. 왜 말을 못 해? 왜 그렇게 말을 못 해?

조련사는 자신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 너무 답답하다.(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 조련사는 상대가 자신만의 논리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에 답답함과 무력감을 느낌. **조련사의 심리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는 **발을 구르고 팔을 휘두르고 고개를 흔들며**(답답한 심정을 표출하는 행동) 몸으로 그

답답함을 호소한다.

조련사: 진짜 그랬는데. 왜 내 말을 안 믿는데.

형사: (소리를 지른다) 가만히 앉아!

의사: 직면하기 힘들어서 그런 겁니다.

어머니: 애야, 정신 차려.

(중략)

조련사: **(꽤 지쳐 있다) 내가 했는데. 다 내가 했는데.**(지쳐 있는 상태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자포자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즉 조련사는 타인의 의지에 맞추어 순응하는 수동적인 처지가 된 것임. **조련사의 말이 달라지게 된 것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 (조련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만, 그만. 진정해. 거기까지. 잘했어. 오후에 기자단이 오면 나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하면 돼. 그러면 모든 일이 마무리되는 거야. 어마어마한 음모가 드러나는 거지. 걱정 마. 넌 가벼운 **문책**(잘못을 깨물고 꾸짖음.)을 받는데 그치도록 손써 줄게.

이때, 친절한 노크 소리. **느닷없이 코끼리가 들어온다. 코끼리는 오로지 조련사에게만 보인다. 따라서 조련사와 코끼리의 대화는 아무도 들을 수 없다.**(비현실적인 환상. 사람들 사이의 소통 단절의 문제를 조련사가 코끼리로 변해 가는 과정을 통해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음.)

조련사: 삼코!

코끼리가 조련사에게 다가와 그를 일으켜 세운 후 가슴에 번호표를 달아준다.

코끼리: **57621번째 코끼리**(조련사)가 된 걸 축하해.

코끼리가 조련사의 목에 화환을 걸어 준다. 코끼리가 조련사를 형사가 있는 쪽으로 보낸다. **이때부터 말하는 사람에게만 차례로 조명이 비춰진다.**(조명 장치를 사용하는 희곡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음. **갈래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조련사에게 조명이 비춰질 때마다 그는 조금씩 코끼리로 변해 있다.

[형사: (조련사에게) 넌 톱기사로 다뤄질 거야. 다른 애긴 집어치우고 유세장 얘기만 해. 어떻게 유세장으로 코끼리를 유인했는지. 고생했다. 배고프지? 좀 이따 따뜻한 국밥이라도 먹자. **기자 회견 때는 김창건 의원 이름을 분명히 말해.**(코끼리의 선거 유세장 침입을 반대 정당의 정치적 음모라고 생각하는 형사) 그래야 네 혐의가 쉽게 풀릴 테니까.

조련사가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오른손을 올려 이마에 경례를 붙인다. 조련사가 어둠으로 사라지면 어둠 속에 있던 코끼리가 그에게 조끼를 입힌다. 코끼리가 그를 의사에게 보낸다.

의사: 고백한 내용, 모두 녹음했어요. **코끼리를 사랑할 순 있지만 그건 병이에요.**(의사는 조련사의 말과 행동을 병과 연관 지어 해석하고 있음. 조련사를 동물 성애자로 몰아감.) 병을 고치는 건 문제점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죠. 선생님의 인정은 정말 용감한 일입니다. 고비를 넘기셨어요. 선생님께도 곧 진짜 애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코끼리가 아닌 진짜 여자.

조련사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감사의 인사를 정중하게 한다. 조련사가 어둠으로 사라지면 코끼리가 그에게 화려한 벨벳 모자를 씌운다. 코끼리가 그를 어머니에게 보낸다.

어머니: 어찌겠니. 순진하기만 한 걸. 그렇게 생겨 먹은 걸. 인생 뭐 있니? 생긴 대로 사는 거지. 그래도 넌 여전히 착하고 멋지다. 그럼, 누구 아들인데. 누가 너처럼 용감할 수 있니? 그래, 다 풀어 줘. 다 초원으로 데리고 가. 개구리도 코끼리도, 엄마도 아빠도 다, 다 데리고 가. 사람들이 나중엔 알 거야. 네가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 혹시 아니? 노벨 평화상이라도 줄지.]([]: 끝까지 조련사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판단에 따른 주장만을 이야기하고 있음.)

조련사가 어머니를 살짝 포옹했다 풍다. 조련사가 어둠으로 사라지면 코끼리가 그에게 커다란 코가 붙어 있는 머리를 씌워 준다. **어느새 조련사는 코끼리와 똑같은 형상을 갖췄다.**(소통에 실패한 조련사가 마침내 코끼리가 됨.) 조명이 서서히 무대 전체를 비춘다. 형사, 의사, 어머니는 자신의 의지가 관철된 듯, 결의에 찬 **박수**(자신들의 의지가 관철된 것에 대한 만족의 박수)를 친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져 우레 같은 박수 소리가 된다. **마치 서커스를 보려고 몰려든 관중의 박수 소리처럼.**(비유적 표현) **조련사와 코끼리는 형사, 의사, 어머니 사이를 돌며 쇼를 시작한다.**(동물원의 코끼리와 다를 바 없는 수동적인 처지로 전락한 조련사의 모습. **조련사가 코끼리가 된 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이미경, 「그게 아닌데」

핵심 정리

- 갈래: 희곡
- 성격: 풍자적, 비판적, 우화적
- 주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대 사회에 대한 풍자
- 특징
 -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을 전개함.
 - 인물이 코끼리가 되는 비현실적인 상황을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냄.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현대 사회의 소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의미의 왜곡과 단절이 일어나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처한 인물은 계속해서 진정한 소통을 시도하지만 일방적 소통을 강요당하며 한계를 느낀다. 소통에 실패한 주인공이 마침내 코끼리가 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소통의 어려움을 부각하고, 소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